

대원정사 대작불사
 대원불교 조계종
 지장 대불 불사 1000일기도 동참 1인1일 1,000원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화주 시주 공덕 바랍니다.
(031)855-5501, 5503
 매주 토요일 철야 정진기도 (오후 11시-오전 4시)

현대불교

대림산업이 짓고 합천 해인사가 운영하는 고품격 추모관
 영가천도·재전문사찰
海印寺 미타원
 02)737-7159

노인복지 불교계가 이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탐골자원봉사센터 16일 개소

노인 실업과 자살 등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가 발 벗고 나섰다.
 조계사가 운영하는 서울 노인복지센터(관장 지원)는 10월 16일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인 '탐골(Top Goal) 자원봉사센터'를 열었다.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 개설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개신교, 천주교 등에 비해 후발주자로 분류되던 불교복지는 노인복지 분야에 새 모델을 제시하면서 노인복지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가 문을 열었다. 10월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마련한 '탐골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될 노인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중무실 당분간 유지 통폐합 논의 보류돼

문화관광부가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종교계와 갈등을 빚었던 중무실 통폐합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중무실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 중무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현재 중무실 통폐합 논의는 보류된 상태. 당분간은 (통폐합) 논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문예진흥원을 문예진흥위원회로 개칭하는 직제개편안을 행자부에 제출해놓은 상태인데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이 문제로 인해 전체적인 직제 개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따라서 중무실 통폐합 문제도 자연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종교시설 30곳 문화시설로 이용

문광부, 빠르면 내년부터 ... 자발참여 유도

조계종, 준비작업 착수

빠르면 내년부터 매년 불교와 천주교 등 7개 종교 시설 30여 곳이 각종 공연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에 따라 종교시설내의 상설 공연장이 늘어나게 돼 문화공연 활성화에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 중무 2과 이안진씨는 "올해 시범적으로 경기 안양시 중앙성당 강당과 용인시 신갈성당 주자장의 경우 공연 관련시설을 갖추는데 5천만원의 소요 비용을 후원했다"며 "문화부는 11월중 종교시설의 문화공연화 사업방안의 연구 보고서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종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 씨는 "현재 상설공연장 부

족으로 공연 관계자들이 공연장 잡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면 종교계, 공연계, 정부, '원·원 게임'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한국극연협회와 '종교단체 시설 공연장화 계획안'에 따르면 종교시설의 문화공연장화는 △순회 공연에 따른 극단운영 개선 △각 종교단체 전도활동의 활성화 △문화향유 계층의 수혜 폭 증대 등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각 사찰마다 산사 음악회를 많이 열고 있는데, 사찰에 문화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일회성이 아닌 장기 공연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관련 준비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김주필 기자 jkim@buddhapia.com

한편 조계종 공대위(위원장 성태)는 17일 국무조정실이 발송한 노선 재검토위원회 후속조치 이행촉구 공문에 대해 "올 4월 14일 노선재검토위원회 합의사항 및 노선재검토 위 운영세칙 규정과 정신에 위배되는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막사이사이상 수상자

23~25일 부산서 회의

2003 막사이사이상 역대 수상자 회의가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

법사) 등 역대 수상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3~25일 3일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다.
 막사이사이상 재단이 주관하고 룩펠러 재단에서 지원하는 '2003 막사이사이상 역대 수상자 회의'에서는 '평화의 길 건설'을 주제로 △지역사회 평화건설노력에 대한 논의 △수상자들 간의 공동체 의식 강화 △아시아인들을 위한 현실적인 봉사 정신 확립 △아시아에서의 재건과 화해를 증진하기 위한 의제들을 다룬다.

남동우 기자

인력순환 시스템 구축·지역단체와 연계

"파생 경제적 이익 연간 1조원 창출 예상"

탐골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와 자원봉사 전문학교 운영, 문화자원봉사활동, 지역사회 환경보호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자원봉사 전문학교는 문화예술포럼, 탐골사랑방사단, 전문강사 양성 등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체험 중심의 체계적인 자원봉사 교육으로 연간 5백여 명의 노인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 파견, 재교육, 보상 등 노인자원봉사자 인력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한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골 자원봉사센터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센터, 새서울 자원봉사센터, 종로구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체를 조직해 연계회의를 정례화 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 개소로 노인자원봉사자 활성화 될 경우 파생되는 경제적 이익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최성재 교수(사회복지학과)는 15일 서울노인복지센터가 주최한 '노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50세 이상 인구 20%(2000년 기준 약 191만 명)가 1주일에 4시간(시급 2,510원)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 연간 1조원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탐골 자원봉사센터 소장 지원 스님은 "국내 최초 노인전문자원봉사센터 개설로 불교복지는 사회통합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고 말했다. **관련인사 4명**
 이동혁 기자 tonylee7@buddhapia.com

북한산도로 공론조사 늦춰질 듯

조계종, 문광부에 회신

대통령 재신임 정국으로 정부가 혼란을 겪으면서 북한산 관동도로 공론조사 실시 여부 결론이 늦춰질 전망이다.
 조계종은 16일 공론조사 정부 청구인 문화관광부 중무실로 발송한 중간회신에서 "재신임 문제가 공론조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 정리가 안 된 만큼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을 확인한 뒤 종단도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

를 보였다.
 불교환경연대 정성은 사무처장도 "재신임 문제가 국경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공론조사 논의가 늦춰질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며 "총선이 내년 4월에 있는 만큼 정부가 불교계의 동의 없이 쉽게 강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 중무실 김진곤 사무관은 "재신임 문제가 공론조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도 "불교계를 계속 설득해나간다는 기본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때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 (02)737-0090 부산: (051)632-0064 대구: (053)768-8008 광주 전남: (062)375-9986 전북: (063)255-2274 대전: (042)489-9390 충북: (043)258-3282 강원: (033)643-5599 영주: (054)634-3429 경남 동부: (055)353-1196 제천: (043)644-4366 경남 서부: (055)547-3469



시각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안보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손끝으로 읽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광맹인복지회가 최근 '의미 있는' 불사를 시작했다. 점자·음성경전 발간 불사 기금 마련을 위해 집술·안마방사단 '자비손'을 발족한 것. 중증 시각장애인 불자 회원 15명이 뭉쳤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내놓았다. 첫 봉

사는 오는 11월 2일 강남 봉은사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무료 집술·안마 활동을 벌이고, 매일 한 차례씩 전국의 사찰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점자·음성경전' 불사의 의미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시각장애인 불자들의 이 같은 활동은 그간 열악한 장애인 불자들의 신행 여건을 스스로 개선해나갔다는 것이다.

지난 89년 창립이후 종로 태일빌딩, 청량리 한국불교교화원 등 월세법당을 전전하던 해광맹인복지회가 '자비손' 봉사단을 결성한 것은 장애인 신행의 적극성을 알

는 것을 보여 줬 조금이나마 불교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한다.
 사실 불교계의 장애인 포교는 말 그대로 '불모지'다. 장애인 불자 수는 점점 줄어 들고 자원이 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해광맹인복지회의 '자비손' 봉사단 발족은 소극적인 신행에 머무는 일반불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하다. 몸은 불편하지만, 스스로 신행환경을 바꾸려는 이들 시각장애인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김철우(취재1부 기자)

부산지역 스님들! 무료로 인터넷 배우세요

11월 3일부터 인터넷·한글 97 등

불교정보화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후원으로 실시하는 '스님들을 위한 무료 컴퓨터 교육 사업' 제 7차 교육이 부산 지역 스님과 종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 2003년 11월 3일부터 4주간매주 월-금 오후1시30분-3시30분
- 교육과정: 윈도우 98, 인터넷 초급과정
- 교육장소: 부산유체국 정보화 교육실(051-466-0021)
- 수강료: 무료(교재비 본인부담)
- 신청 접수: 현대불교신문사 부산지사
 지사장 김종열 051-632-0064, 011-219-5066
- 모집 인원: 8명

불교정보화협의회·현대불교신문사

치악산 구룡사 대응전 원형 복원 신축 기공 대법회

치악산 구룡사는 신라 시대 문무왕 6년(AD 666년)의 의상대사께서 창건하신 1400여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원영서 제일의 호국명찰로서 도선국사, 무학대사, 서산사명대사 등이 수행한 전통사찰이며 호국안보, 조국통일, 국민안위를 발원하며 중창불사 만일기도를 정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난달 30일 전기누전 발화로 대응전이 전소되어 금번 실측보고서에 의한 원형복원 신축기공대법회와 천일기도 및 만동불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코저 하오니 무로 동참하여 선근인연을 맺으시길 기원드립니다.

- 일 시 : 양 10월 24일(금) 10시
- 장 소 : 치악산 구룡사
- 법 어 : 현해큰스님(월정사 회주)

- 만 등 : 1인 1등 : 1만원정
- 성 금 : 십시일만
- 도 편 수 : 신응수 (경북국 신축)
- 설계감리 : 안정환 (삼풍 설계주)
- 불 상 : 정영호 (문화재위원)
- 온라인계좌
 농 협 307011-51-036037 예금주: 구룡사
 우 체 국 201327-01-001841 예금주: 구룡사
 국민은행 303-01-0579-463 예금주: 구룡사
- 접 수 처 : 치악산 구룡사 중무소
 Tel. 033-732-4800~3
 Fax. 033-732-1211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 1029

불기 2547년 10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치악산 구룡사 주지 (자광) 이원행